

김지영2, 2차 연장 이글로 KLPGA투어 '통산 2승'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 우승
박민지 연장분류 준우승...이소미 3위
김효주, 4라운드 중 목에 담 증세 기권

김지영2(24·SK네트웍스)가 연장 2차 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김지영2는 28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6503야드)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총상금 7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디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김지영2는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박민지(22·NH투자증권)와 함께 공동 1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뒤 2차 연장에서 이글 퍼트로 박민지를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15년 KLPGA에 입회한 김지영2는 2016년부터 KLPGA투어에서 활약했다. 2017년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던 김지영2는 약 3년 1개월 만에 KLPGA투어 개인 통산 2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김지영2는 이날 2번홀(파4)부터 5번홀(파4)까지 4연속 버디를 잡으며 상승세를 탔다. 12번홀(파4)에서 보기로 주춤했지만

13번홀(파5)과 14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로 만회했다. 김지영2는 18번홀(파5)에서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박민지에게 동타를 허용했다. 18번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 1차전에서 두 선수는 나란히 버디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어진 2차전(18번홀)에서 김지영2는 2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박민지도 3번째 샷을 홀컵 가까이 붙였지만 김지영2는 장거리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8월 2019 보그너 MBN 여자오픈 이후 약 10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박민지는 연장전에서 아쉽게 밀리면서 KLPGA투어 통산 4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던 이소미(21·SBI저축은행)는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272타에 그쳤다. 이소미는 1타를 줄이는데 그치면서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8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6503야드)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총상금 7억원) 최종 4라운드 3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는 김지영2.

E1 채리티 오픈 우승자 이소영(23·롯데)은 14언더파 274타로 단독 7위에 올랐다. 안소현(25·삼일제약)은 이날 2타를 줄이면서 8언더파 280타 공동 21위를 마크했다. '메이저 퀸' 박민지(20·한국토지신탁)는 4라운드에서 3타를 잃으면서 6언더

파 282타 공동 33위에 머물렀다. 한편 미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김효주(25·롯데)는 4라운드 중 목에 담 증세로 기권했다. 김효주는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였으나 마지막 날 목 통증으로 전반 라운드에서 3타를 잃으며 흔들렸고 끝

내 기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한국대회에 집중하고 있는 김효주는 이달 초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우승, 한국여자오픈 준우승, KLPGA 챔피언십 4위 등으로 맹활약을 펼쳐왔다.

MLB 토론토 "ERA 1위 류현진 잊지마"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
팬들도 "우리 팀 에이스" 기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류현진(33)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새로운 에이스의 존재를 팬들에게 다시 각인 시켰다. 토론토는 27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잊었을까봐 다시 상기시켜 준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류현진이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투구하는 사진과 과거 LA 다저스 시절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는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팬들 역시 댓글로 류현진을 반겼다. 팬들은 "우리 팀의 에이스" "이번 시즌 리그를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저스 팬이라고 밝힌 한 팬은 "류현진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사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토론토 인스타그램 캡처)

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달러에 계약했다. 류현진은 올해 토론토의 에이스로 활약하게 된다.

한편 메이저리그는 7월 24일 또는 25일 개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기 어려워진 토론토 구단은 조만간 훈련 장소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bluejays @ · 플로우
bluejays @ REMINDER: @ryunhyunjin325 led the Majors with 2.32 ERA last season. 🇺🇸
1일

"트라우트, MVP 유력 후보"

60경기로 축소 진행되는 2020시즌에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마이크 트라우트(28·LA 에인절스)가 MVP급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MLB.com은 27일(한국시간) "트라우트의 10번째 시즌은 데뷔 후 가장 이상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유례없는 시즌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라우트는 여전히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트라우트는 통산 1199경기에서 타율 0.305 285홈런 752타점을 기록했다. 첫 풀타임 시즌이었던 2012년에는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에 등극했고 이미 MVP도 3번(2014, 2016, 2019) 차지했다. MLB.com은 트라우트가 바릭에서 풀타임 활약을 펼친 2012시즌부터 지난해까지 첫 60경기 성적을 토대로 올해 성적을 예상했다. 트라우트의 시즌 첫 60경기 평균 기록은 타율 0.308 출루율 0.424 장타율 0.588 15홈런 10도루 38타점 46득점이다. MLB.com은 "트라우트가 2020시즌 이와 같은 성적을 올린다면 또 다시 아메리칸리그의 유력한 MVP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관중' 프로야구, 7월부터 30% 관중 입장

프로축구도 40% 관중 입장 검토...음식 취식·응원 등은 제한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 중인 2020시즌 KBO리그의 관중 입장이 다음달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단 구장 수용 규모의 30% 관중만 입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의 통해 관중 입장 날짜를 확정하되 내부적으로 40%의 관중을 들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에 따라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야구가 5월 5일, 프로축구가 5월 8일,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5월 14일 각각 개막했지만 관중은 받지 않았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

중 허용 규모 및 경기 일시 등 세부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KBO의 경우 내주 중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과 관련한 세부 지침안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수용 규모의 30%의 관중을 입장하도록 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40%, 5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KBO는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관중 입장 비율을 높이되 올 시즌은 최대한 50%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KBO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중 입장 비율을 늘리더라도 절반 이상을 넘기진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입장객 숫자는 정부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O는 이미 수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구축한 상황이다. 뉴스1

가택연금 중인 40세 호나우지뉴 "마라도나 팀에서 현역 뛰고싶다"

인간답지 않은 축구 묘기를 실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선보여 한때 '외계인'이라는 수식까지 받았던 호나우지뉴가 현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축구화를 벗은 지 5년만인데, 복귀를 원하는 팀이 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합니시아(아르헨티나 1부리그)라 흥미롭다. 아르헨티나 언론 엘디아를 인용한 외신들의 2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브라질 클럽 플루미넨세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한 호나우지뉴가 마라도나 감독 휘하에서 다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마라도나 감독도 어느덧 마흔이 된 호나우지뉴를 자신의 스쿼드에 포함시키고 싶

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나이도 나이지만, 호나우지뉴는 지금 가택연금 중이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3월4일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파라과이 현지에서 체포된 뒤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한 달여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그 외중 풋살대회에 참가하고 수감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소식이 알려져 연일 이슈가 됐다. 32일 간의 수감 생활을 했던 호나우지뉴는 160만달러(약 19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한 달 여 만에 석방됐는데, 현재 가택연금 중이다. 현역 복귀보다는 정상적인 신분을 되찾는 것이 우선인 호나우지뉴다.

전남드래곤즈, 측면공격수 임찬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맞트레이드를 통해 제주로부터 임찬을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반면 취약점으로 평가받던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수비수 김경재를 내어주고 측면 공격수 임찬을 영입하는 맞트레이드를 실시했으며, 금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결과가 이상 없었기 시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임찬은 좌우 측면 공간을 파고드는 돌파력과 찬스에 골을 성공시키는 골 결정력이 뛰어난 측면 공격수다. 특히, 많은 활동함을 바탕으로 수비 가담도 탁월하고 팀 전술 구사능력도 뛰어나다. 한양대 재학시절 2년 연속 U리그 권역

득점왕을 차지한 임찬은 지난 2017년 강원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프로통산 45경기에 출전해 2골 5도움을 기록중이다. 전남드래곤즈는 김현욱과는 한양대 동기로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던 임찬을의 합류로 빠른 측면 공격과 중원 장악을 통한 패스플레이 등 다양한 공격 전술로 팀 공격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찬은 "대학교 때 호흡을 맞췄던 김현욱과 다시 댈 수 있어 기쁘다. 또한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전경준 감독의 부름에 감사하다. 전남에서 제가 할 일은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팀이 1부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4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NBA 16명 '코로나19' 확진...7월31일 리그 재개

7월말 재개를 앞둔 미국프로농구(NB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NBA 및 NBA 선수협회는 27일(한국시간)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총 302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은 보건 당국 방침에 따라 자

가격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덴버 너게츠 니콜라 요키치, 새크라멘토 킹스 자바리 파커, 인디애나 패이서스 말콤 브룩턴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NBA 사무국은 오는 7월31일 2019-20시즌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